



##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의 미술을 찾아서**

The Art of Central Java, Indonesia

고정은\*

Jeong Eun KOH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중심으로 동서로 길게 늘어선 수많은 섬로 이루어진 나라로, 불교와 힌두교의 미술작품과 유적들은 주로 자바섬 외에 서부 쪽의 수마트라, 발리, 깔리만탄 등에 집중해 있다. 그 중에서도 자바섬은 시대를 불문하고 조형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자바섬의 중앙에는 약 3천미터 정도의 화산이 연결되어 있고, 그 남북으로는 화산성 토양으로 이루어진 비옥한 토지가 펼쳐져 있어서 예부터 이 지역에 생활터전이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구석기시대 유적과 유물이 출토된 점과, 현재 인도네시아의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자바섬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HK연구교수, kohje@iseas.kr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략 8세기부터 10세기 전반까지는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 자바섬의 중부에 있었고, 그 이후 이슬람문화가 서서히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16세기전반까지는 자바섬의 동부가 그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의 전성기는 대체로 초기시대(8세기까지), 중부자바기, 동부자바기로 크게 분류된다. 특히 이슬람시대 이전까지의 종교건축, 말하자면, 불교나 힌두교의 사원이나 법당, 승원, 스투파가 안치된 공간, 사당형식의 건물, 목욕장, 왕족의 묘(墓廟) 등 개별적인 것이든 가람배치 등 종합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찬디(candi)라고 통칭한다.

필자는 2011년 1월에 인도네시아 현지조사를 다녀왔는데, 발리, 족자카르타,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불교 및 힌두교 미술작품과 유적지를 연구대상으로 진행했다. 본고에서는 그중에서 중부자바 미술에 해당하는 문화유적지를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 머라삐 활화산

머라삐는 2007년에 이어 2010년에도 화산이 분출되어 현지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기도 하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는 정상까지의 등반은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머라삐 활화산이 바라보이는 곳까지는 입장은 가능하였다. 분출된 화산재가 흘러내려와 마을을 덮친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었고, 담장과 집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곳에 생 활터전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왕조가 있다한들



<그림 1> 머라삐 활화산. 인도네시아.  
출처: 필자사진.

위대한 자연의 숨결 앞에서는 한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일도 이곳에서는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었다.(그림1)

## II. 디엥고원을 가다

디엥고원은 족자카르타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화산의 분화로 생긴 이 디엥이란 지역은 '신이 사는 곳'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힌두사원유적군 이외에 여러 생태 유적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Dieng'이란 이름은 '선조가 사는 곳'을 의미하는 'Di Hyang'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이 지역은 고고학적 유물뿐만 아니라, 유황, 온천, 호수 등으로도 유명하다.(그림2,3) 이곳의 힌두사원유적은 힌두교의 한 종파인 시바파의 유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여덟 곳 정도의 유적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사원(찬디)의 각각의 명칭은



<그림 2> 유황이 산재해 있는 디엥고원의 모습. 출처: 필자사진.



<그림 3> 디엥고원에 위치한 일종의 유황온천. 출처: 필자사진.



<그림 4> 비마 사원(Chidi Bima). 출처: 필자사진.

와양(그림자연극의 서사시)의 영웅들의 이름에서 유래하지만, 상당히 먼 후대에 붙여진 것들이다. Candi Arjuna, Candi Semar, Candi Srikandi, Candi Puntadewa, Candi Sembadra, Candi Bhima, Candi Dwarawati, Candi Gatutkaca 등 찬디의 명칭은 모두 <<마하바라타>>의 등장인물로부터 유래한다. 이 외에 찬디의 초석이 남아 있는 곳도 있고, 승려와 사원의 관리인, 방문자를 위해 사용된 pendapas(나무로 만든 숙박처)가 몇몇 남아 있다.

유황이 들끓는 곳을 지나아르주나 힌두유적군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들어서면 찬디 비마의 모습이 보인다. 1기의 건물이 찬디를 이루고 있으며, 하단의 기단부, 가운데 부분의 신사(身舎), 그리고 상단의 옥개(屋蓋)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옥개 외벽에 라트나, 신사의 내부에 링가와 요니, 그리고 입구부분에 카라, 마카라 등이 장엄되어 있다.(그림4)

찬디 비마를 지나 15분쯤 차를 타고 가면 찬디 아르주나가 나타난다. 이 유적군은 서너 기의 독립된 찬디가 존재하며(그림5,6), 찬디 아르주나(그림7)를 포함해서 이 일대가 하나의 문화공원처럼 되어 있다. 물



<그림 5> Candi Cetyaki. 디엥고원. 출처: 필자사진.



<그림 6> Candi Cetyaki 내부.  
출처: 필자사진.



<그림 7> 아르주나 힌두사원군.  
디엥고원. 출처:필자사진

론 주민들이 농작을 짓고는 있지만, 살아 숨 쉬는 삶의 터전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들 유적이 반갑게만 느껴지는 것은 감출 수 없다.

### III. 찬디 먼뎃과 찬디 파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두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동남아시아에서는 매우 드문 고대불교유적지가 존재한다. 바로 찬디 보로부두르! 그런데 찬디 먼뎃은 보로부두르의 동쪽 3km에 위치한다. 통상의 찬디가 동쪽 내지 서쪽을 정면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이 건축은 북서면을 정면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 찬디 먼뎃과 보로부두르를 잇는 선상에 찬디 파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찬디 파원도 찬디



<그림 8> 먼뚝 사원.  
중부자바기(8-9세기).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마그랑  
(Magelang).

먼뚝도 동일하게 북서를 정면으로 하고 있다. 일직선상에 늘어선 이들의 세 사원을 잇는 참도가 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지만, 그 추측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자바밀교의 교리서인 『산 히안 카마하야 니칸』에 표현된 존상들의 배치와, 보로부두르의 존상의 배치를 대비시켜보면, 보로부두르의 정면방향은 동쪽이 아니라 북동으로 보는 설이 있다. 나아가 이것과 관련해서 샤일렌드라왕조의 왕도는 보로부두르의 북동, 그리고 찬디 먼뚝의 북서방향에서 구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설도 제시되어 있다. 이 설은 찬디 먼뚝이 왜 북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시사하고 있다. 샤일렌드라왕조의 왕도의 소재지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흥미로운 가설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부에는 본존상과 그 좌우에 보살상으로 추정되는 3기의 대형의 존상이 안치되어 있다.(그림 9-11) 이들 상에 대해서는 샤일렌드라의 왕이 말레이 반도 중부에 석가와, 연화수, 금강수의 두 보살을 안치한 사당을 건립했다는 명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삼존을 그 명문에 비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입구의 내벽에는 4기의 대형 부조가 구성되어 있는데, 좌우에는 천상계의 나무라 일컬어지는 칼파타루(kalpataru) 나무, 그리고 그 안쪽으로 하리티와 판치카상의 모습과,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찬디 먼뚝의 기단 정면에 있는 계단측벽의 외벽에는 부조가 있는 장방형(세로 40-50cm)와 삼각형의 구획을 4단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보



<그림 9> 먼뎃사원 내부 중앙의 불의상. 출처: 필자사진



<그림 10> 먼뎃사원 내부 바라보아 왼쪽의 보살의좌상. 출처: 필자사진



<그림 11> 먼뎃사원 내부 바라보아 오른쪽의 보살의좌상. 출처: 필자사진

수할 때 새로운 석재와 교체된 부분도 있다. 한 화면에 한 이야기의 자타카(본생담)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주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그림 12) 이 북면의 첫 번째 단 오른쪽은 빨리 문 『자타카』 제215화의 ‘킷찻빠(거북) 본생’이다.(그림 13) 두 마리의 거위가 거북을 먼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막대기를 거북에게 물게 하고 막대기의 양 끝을 입으로 물어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다. 그것을 본 아이들이 놀리는 것을 보고 거북이가 대꾸를 하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땅에



<그림 12> 먼뎃사원의 계단측 벽 외벽에 표현된 본생도. 출처: 필자사진.



<그림 13> 먼뚝사원의 계단측벽 외벽에 표현된 본생도 중에서 킷킷뻘 본생. 출처: 필자사진.

막대기의 양 끝을 입으로 물어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다. 그것을 본 아이 들이 놀리는 것을 보고 거북이가 대꾸를 하려고 입을 벌리는 순간, 땅에 떨어져 숨을 거두었다. 현명한 신하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 많은 왕을 꾸짖었다는 것이 대강의 이야기로, 이 대신이야말로 현재의 붓다였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2,3의 산스크리트문의 설화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것 외에, 몇 가지의 한역경전도 포함해서 <<今昔物語集>>권5에서는 거위가 학으로 바뀌어 있다. 최근에는 옛자바어의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인도의 5예와 자바의 6예의 부조의 도상을 비교하고, 동부 자바기의 찬디 빠나따란에도 2예가 남아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단의 왼쪽은 『자타카』 제389화의 ‘금색의 게 본생’으로, 까마귀가 독사에게 부탁해서 농부를 물게 했지만, 게가 집게로 까마귀와 뱀을 물어 친구인 농부를 구했다고 한다.(그림 14) 반대쪽인 남면에는 『자타카』 제281화의 ‘중양의 망고 본생’도 있다.

한편, 먼뚝 사원의 외벽에는 팔대보살이 조성되어 있다. 안산암으로 쌓은 외벽 네 모서리의 좌우 벽면에 각기 다른 지물을 권 8구의 보살상이 표현되어 있다. 아시아 각 지역에 남아있는 팔대보살상의 작품에 대해 불공이 한역한 <<팔대보살만다라경>>과 <<보현행원찬>>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진척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다고 하겠다. 먼뚝 사원의 입구에서 바라보아 왼쪽에서부터 차례로 보



<그림 14> 먼뒿사원의 계단측벽 외벽에 표현된 본생도 중에서 389화 금색의 게본생. 출처: 필자사진.

살상이 조성되어 있는데, 대체로 지장→미륵→관음→보현→금강수→문수→허공장→제개장 보살의 순서로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음은 오른손은 여원인을 짓고, 왼손으로 연화를 쥐고 있고, 그외의 상들도 제각기 수인과 지물을 쥐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그 주변국과의 팔대보살상을 서로 비교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파원사원(그림 15) 역시 보로부두르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먼뒿사원 못지않게 매우 세밀한 플랜에 의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부에는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 있지만, 외부의 벽면에는 생명의 나무를 비롯한 킨나라 장식 등 중부 자바기의 숙견된 조각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5> 파원사원. 중부자바기(8-9세기).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마그랑(Magelang). 출처: 필자사진.

## IV. 뵤람바난 힌두사원군

찬디 뵤람바난은 그 규모의 크기와 섬세한 조각기법을 통해 보는 이를 압도시키기에 충분하다. 사역에는 시바, 브라흐마, 비슈누를 모신 사당군이 솟아 있고, 사원의 벽면은 무리를 지어 뿔을 기세의 조각과 부조로 가득 차있고, 힌두교 신화의 장면과, 신상, 동물 그 외의 형상이 곳곳에 나열되어 있다. 건축 그것이 하나의 조각덩어리인양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장려한 건물이 늘어선 사역에는 일찍이 물이 모여 있었던 곳이라는 설이 있다. 청정한 물을 기리는 사역에서 마치 높은 봉우리가 험준하게 솟아있는 듯이 건물이 숲을 이뤄서 서 있었다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흥미깊은 것은 자바에서 번역된 『라마야나』에서 힌두교 사원에 대한 묘사 중에서, 사역이 우유바다에, 그리고 건축이 만다라산에 비유되고 있는 점이다. 그것에는 힌두교의 창세설화로서 유명한 우유바다젓기(乳海攪拌)의 내용과 사원의 조형이 관련되어 있다. 현재 찬디 뵤람바난의 사역에 배수설비가 완비되어 있고, 그곳에 물이 차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갖춰진 경내의 부지와 이를 둘러싼 주벽과는 물을 저장하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원래 비만 내린다면 자연스럽게 물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우유바다에 솟아 있는 쉘산이라는 이미지로서 찬디 뵤람바난을 새삼스레 재인식한다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일 것이다.



<그림 16>  
뵤람바난 힌두사원군.  
출처: 필자사진.